

외환위기 상처 말끔히 치유하려면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상무 유병규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사상 처음 맞는 경제 파산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처절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동안 국내 경제는 거시경제 기초 여건 악화나 기업 수익성 상실과 같은 외상은 거의 치유했다.

지난 10년 동안 규제금융 유치 등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한 한국 경제는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 국민 1인당 소득 2만달러, 주가 2000, 무역규모 6000억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도산과 통폐합 그리고 인력 감축과 같은 사업 합리화의 쓰디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놀라보게 개선되었다.

수익률이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지면서 국제 신인도는 다시 올라갔다. 실업의 서러움과 개인 파산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가계의 소득 구조도 안정되는 추세다. 가구 소득이 꾸준히 늘고 신용 상태는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를 통해 입은 한국 경제의 상처가 아물고는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은 재도약 궤도로 진입하기에는 힘겨운 상태다.

이전과 같은 강인한 체력과 왕성한 활력을 회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우선 상흔을 말끔히 씻어내고 더 큰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새 살이 돋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실현된 경제 성과는 과거에 마련한 먹을거리를 효과적으로 재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3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이다. 적극적인 저금리와 저환율 정책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극적

으로 때맞춰 등장한 거대한 중국 시장이 이들 산업의 활로를 다시 열고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며 중국 경제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만을 의지하여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선 멀쩡하지만 원활한 내부의 기순환이 여전히 힘든 것도 문제다.

한국 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전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확립되지 않아 매년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경쟁력 약화가 염려되고 있다.

경제 전반에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복잡다기한 규제와 역차별이 상존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점도 한국 경제의 기순환을 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에 상호 차별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지 못해 대립적인 시각과 정책이 상존하는 것도 국내 경제 기력을 약화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계층별 양극화 현상 역시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어렵게 하는 기능마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전혀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를 통해 입은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완전히 치유하는 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룩한 정신적 동인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이었다.

외환위기는 기업가정신을 무모한 사업 확장으로만 폄훼하고 이를 억제하는 이중 삼중의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급급하도록 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기업 내부의 끈끈한 신뢰감과 적극적인 근로의욕이 약화된 점도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다. 성장동력 약화로 중산층 의식이 사라진 것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결국 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재도약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원천 확보, 선진 경제 시스템 구축, 경제 정신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세 과제를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공통 요소는 외환위기 이후에 강화된 기업 규제를 새로운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다. 이래야 기업가정신이 부활해 투자가 늘어나고 시장 원리가 작동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드높아진다. 경제가 성장하면 뜨거운 근로 의욕도 살아나게 된다. 이럴 때 한국 경제는 비로소 외환위기의 내상을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선진 경제국으로 비상할 것이다.